

정주진정법의 임상실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마취과학교실

박 창 주

경력	1995. 3 ~ 1999. 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9. 3 ~ 2000. 2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2000. 3 ~ 2002. 2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2002. 3 ~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전임의
----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마취과학교실, 우편번호: 110-744

Tel: +82-2-760-3041, Fax: +82-2-766-9427, E-mail: chang40@snu.ac.kr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과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진정법을 사용하는 것은 최근 소아치과전문이나 구강외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학교실에서 임상 각 과와 함께 시행한 진정법의 임상증례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하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총 221명의 환자(남자: 98명, 여자 123명)에게서 총 302건의 진정법(의식진정법 198건, 심진정법 104건)이 시행되었다. 환자는 치과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89명), 응급치과치료를 요하는 장애인(75명), 치과치료에 자발적인 협조가 어려운 소아(31명) 그리고 환자감시하마취 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MAC)와 병행한 환자(26명)들이었다.

정주진정법이 총 271건으로 propofol과 midazolam을 같이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29건), propofol만을 사용한 경우(32건)와 midazolam만을 사용한 경우(10건)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근주진정법(midazolam 7건, ketamine 4건)이나 흡입진정법(sevoflurane-N₂O-O₂ 20건)이었다. 평균치료시간은 58.5±20.3분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따로 시행하지 않았으나 진정법에 대한 불만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진정법 후 합병증으로는 회복지연이 15건, 술 후 오심과 구토가 5건, 이물질 흡인이 1건이 있었으나 위중한 호흡기계나 심순환기계 합병증은 한 건도 없었다.

치과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로 인하여 치과치료를 위한 진정법의 시장은 매우 넓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진정법의 시행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앞으로도 이러한 임상보고들을 바탕으로 치과치료를 위한 진정법에 대하여 임상의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